



지난 4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사이언스 북 스타트 운동 추진선언'에서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참여선언을 하고 있다

사이언스 북 스타트운동 추진 선언

- 상임대표 김수환추기경, 공동대표 20명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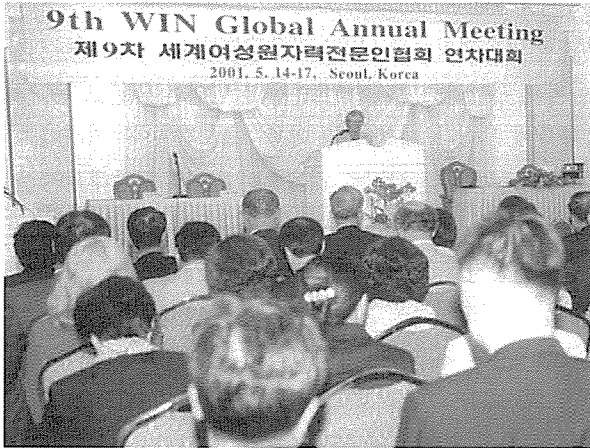
사단법인 '과학사랑·나라사랑운동본부'는 오는 6월23일 서울에서 사이언스 북 스타트운동 국민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수환추기경이 이 운동의 상임대표를 맡기로 하였으며 그 외 공동대표단 20명도 확정됐다. (명단 별항) 이 운동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이 놓여온지역과 낙도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1년에 한 권 이상의 과학서적을 보내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훌륭한 과학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인 1백20여명은 지난 4월 과학의 달 마지막 날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 운동의 선언식을 가졌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는 이미 절박한 국가문제가 된지 오래다. 과학기술이 나라 발전과 행복한 생활의 기둥이라고 줄곧 뇌이면서도 과학기술의 인력은 차차 줄어들고 있고 산업현장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의 해외의존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합리와 창조, 능률의 과학정신이 잊혀진 채로 허망한 한탕주의가 사회에 풍미하고 있다. 오죽하면 연구에 매달려야 할 과학기술자들이 국민대중의 과학기술 이해운동에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됐을까.

삶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로 흔히 경제 성장, 건강한 수명, 교육 정도, 도서출판의 보급률 등을 따진다. 따라서 단순히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동물적인 삶에 못지 않게 정신적인 풍요를 구가하며 여유있는 삶을 누리기 위한 문화적인 요소로서 도서의 출판 및 책읽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 이르렀고 평균수명도 70세를 넘겨 외형적으로 보면 버젓한 선진국의 모양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도서보급률이나 독서율에서 후진국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책을 멀리하고 컴퓨터나 TV에 매달리는 전파문화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전파문화는 얇은 지식과 토막상식으로 세상사를 가늠하고 즉흥적인 행동과 순간적인 쾌락에 몰입하는 인간성을 조장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전파문화에 길들여진 젊은이들의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에 의한 폐해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사이언스 북 스타트운동은 전파문화에 탐닉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과학지식을 보급하고 책읽기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계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과학 이해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동안 과학기술인들은 저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분야의 특성만을 강조함으로써 단합의 힘이 약하고 사회운동에 소극적이라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번 기회야말로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각자의 연구분야를 넘어서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운동에 발벗고 나설 때다. 그래서 지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열매맺을 수 있는 계기로 삼을 때다.

〈사이언스 북 스타트운동 공동대표 명단〉 김명자(환경부 장관) 김병수(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영환(과학기술부 장관) 김우식(연세대 총장) 김용운(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시중(전 과학기술부 장관) 김재철(무역협회 회장) 김정욱(고등과학원 원장) 김종량(한양대 총장) 김진현(전 과학기술부 장관) 배순훈(전 정보통신부 장관) 오명(동아일보 회장) 이규태(조선일보 논설교문) 이기준(서울대 총장) 이상희(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어령(전 문화관광부 장관) 정성기(포항공대 총장) 최덕인(KAIST 원장) 한인규(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홍석현(중앙일보 회장)

세계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제9차 연차대회 개최
세계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WIN Global 제9차 연차대회(5. 14~15일 서울 팔레스호텔)

세계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Women In Nuclear-Global) 제9차 연차대회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여성 원자력전문인 1백여명이 참석하여 일반대중, 특히 여성과 차세대에 대한 원자력 이해증진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여성원자력전문인의 역할을 다짐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WIN은 1993년 창설된 단체로 현재 세계 51개국의 원자력에너지, 방사선이용, 원자력홍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전문인 2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WIN-Global은 해마다 연차대회를 열어 여성원자력전문인력의 상호협동과 전문경험 교류를 증진하고 있다.

이번 연차대회에서는 세계WIN 이사회와 제9차 정기총회에 이어 3편의 특별강연과 7편의 초청강연이 함께 있었다.

소 해면상 뇌증(광우병) 관련질병의 국내외 현황과 대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회장 이문환)는 5월29일 서

울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의 광우병 전문가와 nvCJD전문가를 초빙하여 '소 해면상 뇌증(광우병) 관련 질병의 국내외 현황과 대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국 농무성의 Katherine O'Ruke와 캘리포니아대학의 Patrick Bosque,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Henrick G. Jensen, 중국 검역원의 Wu Jiansan, 독일의 Heino Dringer 등 5명의 세계적인 전문가와 서울대 박용호교수와 한림대 김용선교수 등 10명의 학자들이 발표하였는데, 광우병의 발병기전, 진단법,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또 국가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기회가 됐다.

제8회 원자력발전소 기기 건전성 워크숍 개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김세중)은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대덕연구단지 본원에서 '원전 주요설비의 노후화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8회 원자력발전소 기기 건전성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원자력 및 기계분야 전문가 약 2백 50여명이 참석하여, 국내 원전 주요기기의 열화, 수명평가 및 관리를 위해 추진해온 각종 연구결과, 설계/제작/운전경험, 비파괴검사기술 등과 관련한 67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원자로압력용기의 가상사고에 대한 건전성 확보문제 및 운전안전 여유도 평가에 대한 국내 비교연구, 배관 및 증기발생기 세관과 관련하여 산·학·연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 결과 등도 발표됐다.

춘계 마이크로파 및 전파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한전자공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전자파학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전자파학회는 공

동으로 5월 12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관 및 인문관에서 2001년도 춘계 마이크로파 및 전파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마이크로파 능동회로, 마이크로파 수동회로 및 EMC/EMI, 안테나 및 전자파 산란, 마이크로파 통신 및 시스템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학·연 공동으로 최근의 주요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학술발표와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여 마이크로파 및 전파와 관련된 연구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리가 됐다.

국제수준의 뇌충격 고전압 측정시스템 확보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원장 권영한) 산업협력부 신영준박사 및 김익수박사팀은 핀란드 헬싱키대학이 주관하는 뇌충격 전압에 대한 고전압 측정시스템의 국제 상호비교시험에서 고정확도와 고정밀성을 확보함으로써 한국전기연구원의 고전압 측정시스템이 국제수준임을 입증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이번 국제 상호 비교시험에서 사용한 고전압 측정시스템은 1998년 11월 호주의 CSIRO가 보유하고 있는 고전압 측정시스템과 상호 비교시험을 수행하여 우수한 시험결과를 얻어 호주 정부로부터 인증을 얻은 측정시스템이다.

신영준박사와 김익수박사팀은 앞으로 국내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뇌충격전압 측정시스템과 비교시험을 실시하여 소급성의 확보 및 유지, 측정기술의 보급, 측정 정확도의 평가 및 인증 활동 등을 통해, 국내 중전기기의 시험평가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과 국제 인지도를 제고시켜 국산 중전기기의 수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방침이다.

제1회 도심지 터널 시공기술 향상 대토론회 개최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회장 김광일) 터널 전문분과위원회에서는 5월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터널분야



김광일 대한토목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에 중사하는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터널협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암반공학회와 공동으로 제1회 도심지 터널 시공기술 향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터널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기술자들의 경험과 시공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듣고 토론함으로써 국내 터널기술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 이번 터널 시공기술 대토론회는 터널 굴착 및 발파분야, 터널 지보 및 구조물분야, 터널 방·배수 및 시공 환기분야의 3개 분야로 나뉘어 11개 사례발표 및 참석자들간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국제 음성신호처리 학술대회 개최 예정 한국음향학회

한국음향학회(회장 성광모)는 오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대전 유성에서 국제 음성신호처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음성관련 분야 및 신호처리 분야에 관심있는 연구종사자들이 모여 음성에 의한 Man-Machine Interface, 음성통신과 음성인식, 음성합성, 자연어처리, 음성부호화, 화자식별과 잡음제거 및 성능 개선 등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교류하고 국내·외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정보통신 등 국내 관련분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를 갖기위해 마련된다.

일본, 대만, 중국, 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3백여명이 참석하여 총 1백50여편(국의 70편, 국내 80편)의 최신논문이 발표될 예정으로 음성 신호처리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음성 처리모델을 연구하고 다양한 응용분야를 개척하여 영어 대신 한국어 음성으로 컴퓨터와 정보교환 및 명령 전달, 그리고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음성분야의 연구수준을 높이고 기능성 및 지능형 정보통신분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동아시아 미분방정식 학술회의 개최 예정 대한수학회

대한수학회(회장 김성기)는 오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대에서 교육부, 과총이 후원하는 가운데 제2차 동아시아 미분방정식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4개국에서 2백여명이 참가하여 국제학술논문 50여편이 발표될 예정이다.

대한수학회는 이번 학술회의가 동아시아 주축 4개국과의 학술교류 활성화와 호주 등 주변국 교류확대의 기초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수학의 역량을 크게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ee KAIST 2001 개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원장 최덕인)은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COEX 1층 태평양관에서 See KAIST 2001(카이스트 30년 Venture Show)행사를 '미래로 세계로 KAIST로' 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 행사는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KAIST의 지난 30년간의 교육·연구성과와 KAIST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업적과 성과를 널리 알리고 KAIST 설립 공헌자, 졸업생, 과학기술 관련 정·관계 인사, 산업계 주

요인사, 학부모 및 가족들이 모여 KAIST 30년을 자축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

제18대 회장 선임 한국과학기자클럽

한국과학기자클럽은 5월 3일 정보통신부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18대 회장(임기 : 2001. 5~2003. 4)에 SBS 과학정보팀 이찬휘차장을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찬휘 신임 회장은 1백62명의 회원이 참여한 투표에서 1백55명의 찬성으로 선임됐다.

한국과학기자클럽은 국내 중앙일간신문, 방송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의학분야를 담당하는 과학전문기자단이 지난 1984년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현재 28개 언론사 2백명의 정회원과 전직 과학부장 및 전직 회장 등의 명예회원으로 구성되어 매년 3~4회의 세미나와 토론회, 회보 「과학기자클럽 뉴스레터」 발간, 이밖에 연구, 출판사업을 하고 있으며 12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는 올해의 과학자와 올해의 정보통신인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국가기술경쟁력 강화' 를 위한 건의문 제출 전국 공과대학장협의회

전국 공과대학장협의회(회장 윤태훈)는 지난 4월 말 '국가기술경쟁력 강화' 를 위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 국회, 언론사 등 주요 관련기관에 발송했다.

전국 96개 공대 학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대학 이공계 지원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융자, 장학금 및 병역특례 혜택 제공을 통한 고급인력 확보, 정부부처의 기술고시 합격자수를 행정고시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술직에 기술직 공무원만 보직되도록 하는 고급인력 운영방안, 사회 각 분야에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의 산학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산학협동 개선 및 강화를 요청했다.